

성도의 벗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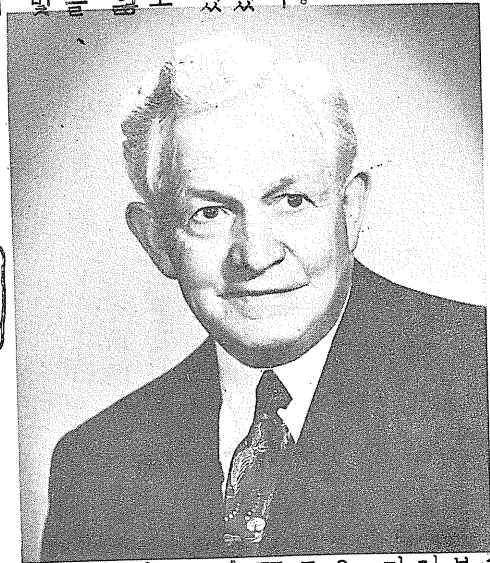
예언자의 말씀:	
순진한 사랑의 꽃	1
당신의 질문	5
습관:	
종이냐? 주인이냐?	8
신앙 간증:	
신앙이 영생으로 가는길	10
상호부조회 공과	
신학	13
방문교사 멧세이지	22
봉사의 모임	25
문학	28
사회과학	34
65년 1월에 침례받은 사람	43
편집 후기	44

“예언자의 말씀”

대관장 데비도 오. 맥케이

나는 10대의 소년시절에 유타주 헌쓰빌에 있는 나의 집 근처의 시골길을 오고든. 리버의 사우스포크 까지 말을 달려갔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 당시 길은 아직 포장되어 있지 않았다. 스프링. 그릭의 격류는 길을 따라 흐르고 있었으며 들장미가 여기 저기 길가에 피어 있었으나 그 꽃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재목들을 무겁게 실은 달구지들이 이트키는 먼지에 덮여 재 빛을 잃고 있었다.

순진한 사랑의 꽃



나는 말을 세워서 길가에 피어있는 이 꽃들을 만져보려고 하지 않고 1마일쯤가서 왼편으로 꺾어 개울밑에 있는 목장에 들어갔다. 거기에는 같은 들장미가 피어 있었으나 그것은 아침 이슬을 담복 먹음고 햇빛에 반짝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트키는 먼지에 조금치도 더럽혀지지 않은 청순한 장미 꽃이었다.

이 꽃이 내가 말에서 내려 만진 장미 꽃이었었는데 그때

나는 마음가운데 "이것이야말로 언젠가 내가 나의 처로
택할 여자인 것이다.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고 지나가
는 먼지에 더럽혀지지 않고 떠러져 있는 사람이 그것인
것이다." 고 생각했다.

만일 모든 청년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사랑을
갖고 그들의 마음가운데 명예와 아름다움과 청순한 미덕
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의없이 택하고 싶
은 여성이야말로 이와같은 여성인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차례 신전에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결혼을 집행한 일이 있는데 그 때마다 그들에게 주는 권
고의 일부는 다음과 같으며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권고이다.

"결혼은 경솔하게 하는 것도 아니며 마음대로 그만두
는 것도 아니다. 또한 결혼생활이란 큰 길을 여행해갈 때
최초로 부딪칠지도 모르는 곤란에 직면했을 때에 그만두
는 것도 아니다.

당신들의 생활가운데에는 당신들의 몸이나 마음이 하
나로 맺혀져 본능보다도 훨씬 아름다우며 한층 신성한
"어떤 것"이 본능이외에 있다. 그 "어떤 것"이란 사랑
즉 인간의 마음에 머물고 있는 가장 신성한 성질이다.
사랑의 신성한 고리로서 맺어져신 권의 권능에 의해 "굳
게 맺어"진 두 마음을 떼어낼 수 있는 어떠한 곤란도 슬픔도
성공도 명예도 부도 세상에는 없는 것이다. 나는 나이
가 들에 따라서, 경험을 쌓음에 따라서 결혼해서 아직 얼
마되지 않은 사람 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오래된 사람들에
게도 예의없이 부부가 다같이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세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사랑에 힘을 주고 사랑을 기르고 사랑에 영양을 주는
첫째 조건은 "친절"이라는 작고도 간단한 것에 연결되어

있다. 사랑을 예찬하는 훌륭한 말씀이 "사랑은 오래참고 사랑은 온유하며"(고린도전서 13:4)라는 것은 의의깊은 일이다. 이 한 구절 가운데 훌륭한 천리가 들어있지 않는가 특히 결혼 당초 수개월과 내가 융합기간이라고 하고 있는 수년동안 남편이 친절하고 온유한것 만큼 부인이 감사하는 것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감정에서 스스로 일어나오는 것은 부드러운 말씨와 정성어린 행동인 것이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 조화의 적합성에 매우 큰 관계가 있다. 부부란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결코 큰소리를 내서는 안된다고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은 이와같은 생각에서이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부드러운 말씨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상호간에 생각깊은 친절한 행동이다. 즉 그것은 결혼후에도 계속되는 "사랑을 구하는"태도이다. 우리들은 서로 예의가 없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사회의 생활에서는 가정에서 소소한 예의를 남편이나 부인이 잊어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정에 자녀들이 있을 때에 특히 중요하다. 그것은 자녀들은 양친의 행동을 보고 곧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절이라는 감정보다도 중요하며 예절 바른 행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린도전서 13:7)라고 하는 셋째 조건이다. 그 확신과 믿음이 있음으로 해서 사랑이 두터워지는 것이다.

아마 당신은 지금 실감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당신이 이 사랑하는 여자에 관해쳐 가지고 있는 그 신뢰성은 남편된 사람이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는 부 보다도 토지 보다도 가옥 보다도 지위나 명성보다도 더욱 훌륭한 재산이다. 또한 그 녀는 그 어깨에 걸쳐진 신부의 베일과 같이 청결하며 햇빛과 같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최대의 신뢰이다.

또한 그녀는 당신과 같은 신뢰를 당신에게 갖지 않으면
않된다 그것은 당신은 아버지가 되는 훌륭한 자격이 있
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신뢰야말로 최고의
것이며 사랑이 두터워지는 숭고한 요소이다. 나는 이
세상에 이 보다는도 훌륭한 이상은 없다고 말씀드린다.

또한 나는 결혼생활을 깨끗하게 더럽혀 지지 않는 상태
에서 시작해 최고의 충성에 각자를 맺는 서약을 교환해
서 시작하는 것이 장래의 조화와 행복을 약속할 수 있
기를 모든 젊은이들이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랑은 순진한 꽃이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
박고 있음을 항상 잊어서는 안된다 장미가 태양빛과 아
침 이슬에 의해서 자라남과 같이 사랑은 확신과 신뢰로
서 자라난다. 그러나 불신용과 의혹의 분위기에서는 사
랑의 꽃은 반드시 시들어버릴것이다. 햇빛이 장미 꽃
에 없어서는 안되는것과 같이 충성과 정절이 사랑의 조
그마한 꽃에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또한 어떠한 사람과 교제하
고 있어도 항상 자기를 잃지 말고 보다 훌륭한 자기를 따
라주기를 바란다.

당신의 피를 깨끗하게 보존하십시오 당신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성한 조직을 통해
서 당신의 동포에게 봉사하도록 항상 힘쓰십시오.

당신은 이상 말씀드린 것들을 굳게 지키면 당신은
많은 좋은 벼를 얻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훌륭한 축복을
받을것입니다. 신전결혼은 영원에 이르는 길을 같이 여
행하는 시작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신전속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집인 신전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날에 당신에게 들려주는 영원의 원칙을 당신이 지키기만 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 당신의 질문 —

질문: 제임스 이. 탈메지장로가 쓰신 신앙개조연구(영문판) 제 466페이지에 보면 엘로힘이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 그대로의 아버지가 되시며 모든 인류의 영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대관장의 인용문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친구 몇 사람이 논쟁을 벌린적이 있었읍니다. 신약성경상으로 비추어 보건대 이 사실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이해할 수 없읍니다. 엘로힘이 예수의 문자 그대로의 아버지며 인류의 영의 아버지시라는 점을 설명해 주시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요.

답: 어떠한 사람이거나 신약성경을 옳바른 기록으로 받아 드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구세주며 만형이 되시는 예수가 신약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의 아들임을 논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 구세주의 하신 일을 통하여 볼 때 예수께서는 자신이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셨고 자주 자기 아버지에게 기도하셨다. 요한복음 17장은 자기가 잡혀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조금 전에 드린 기도시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셨고 모든 인간은 죽음에서 놓여 나오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지구위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음에 얹매이게 되었고 따라서 속죄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구속은 아담의 타락의 값을 치루시려고 예수께서 피흘려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주님의 계시를 보면 이 지구는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기 까지는 죽음에 얹매이거나 썩을 수 밖에 없는 상태

에 이르지 않았음을 밝혀주고 있다.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아담과 이브에게 죽음이 임하였을 뿐 아니라 모든 생물과 지구 자체에도 죽음이 임하게 된 것이다.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 보면 이 점에 관해서 명백히 알 수 있다. 더욱이 퍼레이 피.프렛장로의 흥미있는 저서인 신학의 열쇠"에 보면 타락이전의 상태와 타락의 성격 및 구세주의 전도 사업과 속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영광스러운 구속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이같은 모든 변화는 본래의 계획에 근거를 두고 생겨난것이다. 값진 진주의 모세서를 보면 타락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이미 준비된 위대한 계획의 일부인 것이다. 죽을 수 밖에 없으리라고 선포되었고 현세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것도 계획의 일부이며 우리 구세주 예수께서는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할 어린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택함을 받아 이 세상에 와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태를 구속하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조금전에 드리신 훌륭한 주님의 기도를 보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자기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또 주께서는 이 세상에 자발적으로 오셔서 세상의 구속주가 되셨고 모든 인간 뿐만 아니라 세상 그 자체를 현세적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며 자기의 계명을 순종하는자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하여 주시고 아헨지의 계명을 순종하모토써 하나님앞에서 추방되지 않게 하셨다.

예언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 나타나 있는 계명을 보면 우리 구세주의 속죄로 말미암아 만물이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리와 성약 29장 22-25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천년(복천년)이 끝나면 사람들은 또다시 저희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리라

그 때에 나는 잠시 동안 세상을 버려두리라"

"끝이 이르면 하늘과 땅이 소모되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리라,

무릇 모든 낡은것은 없어지고 만물이 새로워지리니 지구와 지구에 가득한 모든것이 새로워지며 인간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들이 모두 새로워지리라, 머리카락 하나나 티끌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손으로 만든 것임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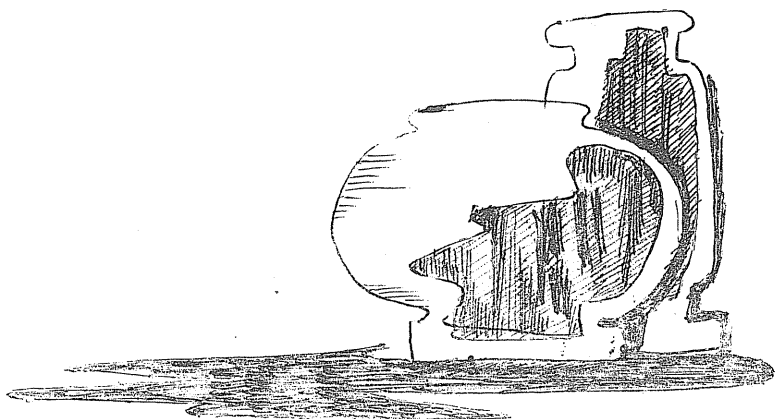


습관; 종이냐? 주인이냐?

"습관이란 가장 훌륭한 종이기도 하며 또한 반면 가장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고 나타니엘 엠몬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란 주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앞에서 습관의 소극적인 면 즉 "가장 나쁜 주인"으로서의 습관을 강조하고 또 습관으로하여금 우리들의 최상의 지각이나 자아에 위해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키도록 방임하지 말것을 제시한듯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습관의 좀더 적극적인 면 즉 "가장 좋은 종"으로서의 습관으로 돌려 보도록 합시다: 좋은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나쁜것을 파괴하는데 중요한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조지 비 치버는 말했으며 "늙은이는 습관의 동물이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거의 모든것이 충동이다. 그리고 습관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전혀 없다. 늙어서는 거의 모든것이 습관이며 그리고 충동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작다. 성격(인격)이 영원을 위해 쓰여지려면 좋은 때에 만들어져야 하듯이 좋은 습관이 행복을 위하여 만들어 지려면 일찌기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들의 지배자가 될 감화를 따라 가고 있는 것이다."고 허만 엘 웨이랜드는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운명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습관을 선택하고 있다. 어느때인가 이들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될 것이다."

이 말들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지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소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나쁜 습관을 부셔 버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으며 나쁜 습관이 파괴적인 거와 다름없이 올바른 습관은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습관이란

일상의 생활과 같이 나아가게 되는 것으로서 인생에 있어서 다른 모든 힘과 같이 습관이란 소극적인 목적으로도 적극적인 목적으로도 지향될 수 있는 것이라 보겠습니다. 건설적으로 우리들은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고 일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으며 독서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고 빚을 갚는 습관과 책임을 다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친절과 예의바른 습관을 만들 수 있고 정정당당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으며 행복한 습관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습관은 불만으로 이끌고 가기도 하고 또한 비 능률적인 것으로 이끌고도 갑니다. 건강을 해치게도 하며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그러나 성취에 이끌고 가며 능률과 좋은 성격과 순수한 양심에 이끌고 가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데비드오 맥케이 대관장이 인용한 바와같이 죠지 디 보아드만의 말이 상기됩니다. "행동을 심으라 그러면 습관을 쌓을 것이요, 습관을 심으라 성격(인격)을 쌓으리라
그리고 성격(인격)을 심으라 그것은 운명을 쌓으리라"
고. (1964년 6월호 임프르브먼트에라 38페이지)



— 신 앙 간 증 —

부산지부: 이 성춘
신앙이 영생으로 가는 길.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 11 : 25)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원히 산다는걸 얼핏생각하면, 다소 한번 더 시간을 두고 본다면 어딘지 심원한 깊이와 감명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신앙으로 우리들은 힘을 얻을 수 있지요 하틀네이 콜러리지는 "신앙은 진리를 불러내어 현재의 사실되게 하는 긍정이요, 행동이다."라는 명구를 남겼지만 여하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까지 힘을 얻어 이익되는 점이 많습니다.

무신앙의 결과가 비참하다는 예를 구약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지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12사사중 최후의 사사로(사사기 13-15장) 용맹스러운 호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같으면 게릴라 전술로 원수 볼레셋 사람을 크게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신적인 견고한 믿음을 버리고 육적 쾌락을 추구하여 불의한 원수의 여성과 관계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써의 긴 머리털에 숨은 능력의 비밀을 밝히고 그 때문에 힘을 잃게 되어 볼레셋사람에게 잡힌후 비참한 최후의 길을 걷게 되었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신앙이 강하면 망할수록 그 생활이 견고하고 그 생활에 신앙이 결하면 그것은 금수의 생활이다."라는 톨스토이의 말을 읽으면 옳다고 생각되는것을 믿는것의 결과는 발전뿐이요 불의라고 알면서 쾌락을 못얻어 행하는 결과에는 타락과 비참 뿐이라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의 역사가들은 로마는 로마인의 품행이 어지러워 짐으로써 망한 것이다."라고 평합니다. 천하를 병합한 대국인 로마가 품행이 어지러워 멸망했다는 사실을 저는 예를 들어 형제 자매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일부인 로마에서 일어나 대국이 된 로마국은 정복자이기 때문에 여러곳에 있는 피정복자의 각가지 신들을 몹씨 천대하여 그 각 신들의 모양을 우상형태로 만들어 박물관처럼 한곳에 모아 진열하여 모든 사람에게 매일 보게 했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니 피정복자인 각 국민들은 점점 신에대한 추앙력이 쇠약해갔읍니다. 따라서 신앙도 소멸되어 간것은 사실이지요. 믿음이 적어져 가는 반비례로 육적 쾌락을 가지는 부도덕과 썩은 윤리의 생활이 더하여 갔읍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신앙이 일어나지는 못했읍니다. 이 때가 과도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인은 서야할 마음의 토대를 잃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부도덕이되고 이것의결과는 공공심을 없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체를 쇠약케하여 야만인들과 싸울 수 없게 하고 드디어 미개인에게 멸망당함에 이른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영생의 신앙을 잃고 다만 이 현세에 있을 뿐 이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그 방향은 실로 그칠줄을 모르는데 이르는 것이다."라고 일본의 금주운동가인 "시마다 사부로"씨가 말했듯이 우리는 이 간단한 실패를 보더라도 개인, 가정, 사회, 국가, 민족에 있어서 신앙을 잃을 때 오는 것은 비참 뿐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비참과 영생중 어느것을 택하겠습니까? 비참이 싫다면 영생을 가져야 할 것이고 영생을 가지자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 3:36)

라는 성구를 우리 같이 깊이 명심합시다. 믿음 가운데서 우리 함께 사랑을 가집시다. "아브라함 골도 후스카"는 "진정한 신앙은 단하나이니 살려고하는 모든이에게 대하여 사랑하는 것 뿐이다."라고 말했지만 사랑없는 믿음은 실체없는 그림자와 같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두려워 하는것도 좋지만 사랑하는 것은 더욱 좋은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가를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신을 겁내는 것은 좋으나 신을 사랑하는 것은 더욱 좋다. 그리고 신을 자기의 내부에 부활시키는 것은 보다 더 좋은 일이다."라고 안겔쓰는 말했지요

신앙은 영혼의 영혼입니다. 신앙은 영혼의 입이지요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읍시다. 신앙은 영혼의 입술이지요.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춤시다. 신앙은 영혼의 손입니다.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악수합시다. 신앙은 영혼의 발입니다.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차게 빨리 걸어갑시다. 아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는 이것을 주기 위해 오신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는 이 말일에 회복된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는 것을 실행과 함께 명확히 간증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사 이 성춘

신 학

로이 다불유 독시 장로 저
최 도 증 역

교리와 성약

제62과: 신권에 관한 계시 (계속)

교 재: 교리와 성약 84장 43-120절

1965년 3월 첫째 모임

목적: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에 있어서의 신권의 위치를 이해하도록 하나님은 여러가지 많은 방법을 준비 하셨다는 것을 이해한다.

영에 귀를 기우리라

모든 사람은 영생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주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는 계명이 84장에 말씀되고 있다.(43-44절) 이 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진리이며 이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상기시켜주고 있다.(45절) 이 영에 귀를 기우리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에게 성약을 가르치고 진리의 간증을 주신다.(48절)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완성을 받아드리도록 사람을 준비시킨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으로부터 빛을 받는다. (교리와 성약 84 : 46, 88 : 11-13)

누구나 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진리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 이 영이 해야 할 일과 그 보편성을 조지 큐 케논 대관장은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 인간이 옳은 일을 하도록 설복하는 것은 영이다.

이 ~~도~~도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 산이나 계곡에 사는 타락한 인디안 일찌라도 옳은 일을 하도록 호소하는 영의 감화를 조금이라도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영은 기독교인과 함께 모든 이교도인을 설복한다. 말일성도에게 하듯 메소디스트나 침례교인을 설복한다. 사람이 사는 지상 어디서든지 이 영은 사람에게 거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것은 인간에게 옳은 일을 하라고 설복한다. 그것은 사탄의 아첨을 거절하라고 사람을 설복한다. 악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많던 적던 영의 경고를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없었다.(설교집 26 : 191)

이 영은 복음의 원리에 순종하고 그 은혜로 안수를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과는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사행 5 : 32, 요한 14:16-17)

의인과 악인

이 중요한 진리에 관련된 것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시고 선악을 식별하는 힘을 주시는 주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이 다소간에 가지고 있다는 것과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면 죄가 영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각 개인은 어느정도로 죄의 굴레에 매어 있으며 따라서 회개의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진리의 완성을 받아드릴 필요성을 이해하기를 희망하고 계시다. 죄가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순종하므로써 용서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명한 방법대로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라 영적 사망의 굴레 밑에 계속 남아 있게 된다. 한편 자기의 신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드리는 사람은 영적 생활을 영위하게 되고 또한 그것이 의로운자의 바른 상태이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이것을 이러한 말로서 풀이하고 있다.

... 오늘날 전 세계는 유감스럽지만 새롭고 영구한 성약을 순종하는 한줌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영적 사망에 고통받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축출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복음의 진리가 없고 구제의 능력이 없다. 그런즉 그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복음도 알지 못한다. 장막처럼 세계를 덮고 있는 영적 사망에서 구출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에게서 다시 내려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 권능을 가진 사람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한다. (대회보고 1899년 9월, 72페이지)

성도들의 불신

성도들이 영적 생활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화를 잃을지도 모른다. 제 84장이 주어졌을 때 시온의 주민들은 물문경에 있는 계시와 영감받은 기록들에 대해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이 경솔하고 불신했던것은 마음이 우매했기 때문이었다. (54-56절) 이 정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말만이 아니고 계시의 가르침에 따른다는 조건에서 시온앞에 열려 있는 것이다. (57절) 회개는 그들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지만 게으름은 천벌과 정죄를 가져올 것이다. (58절)

믿는자에게 따르는 표적

이 계시속에 언급된 장로들은 그들이 복음의 제일 원리를 받아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성령을 받으리라는 것을 세상에 나아가 만민에게 간증하여야 했다. (교리와 성약 84 : 62-64) 그런 뒤 많은 표적—이적, 악귀를 내쫓음, 병고침 등—이 믿는자들에게 따르리라고 하나님은 지적하셨다. (65-72절)

대단히 중요한 훈계가 장로와 이러한 축복을 받거나 그

에 관여한 회원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계명을 주노니 그들은 이것들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말을 하거나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의 이와 구원을 위해 주어진 것이니라 (73절)

이적은 모든 경륜의 세대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어졌다. 그 가운데 하나의 이적인 성령의 영적 은사 복음의 완성의 일부인 것이다. (교리와 성약 46 : 21) 믿는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아왔다고 간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일성도에게는 잘 알려진 것이다. 정확하게 말해서 이적(표적)은 참교회의 한 특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적 그 자체는 그러나 진리의 증거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적에 의해 구원받지 않는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말일성도와 구원에 들어가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성령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것이다. 이적이 신자를 고무시키는 부차적인 증거로서 도움을 주지만 그것이 이러한 지식을 인류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예수의 이적은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지만 그들은 그를 인류의 기만자이며 귀신들린자로 취급하여 고통을 주고 드디어 죽게한 것이다. (설교집 10 : 193)

하나님의 표상의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별하는가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성도들은 가지고 있을까? 병고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여러부분중 하나에 불과하다. 여러가지 원리와 의식중의 하나가 복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또한 침례와 같이 어떤 조직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복된 교회가 참 교회라고 믿는

것은 역시 잘못된 것이다. 어느것이 참된 교회인가를 식별하는 열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가르치신것과같이 모든 원리와 의식이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되었을 때 참된 교회가 존재한다. 만약 병고침이 복음의 전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조직은 그 자체에 구원의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은 해의 영광의 나라에 승영시키는 것이다. 복음의 의식과 원리를 집행할 권능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승영은 가능하지 않다.

일꾼이 제 삯을 받는것이 마땅하다.

그들에게 가르쳐준 구원의 멍세이지를 온 세상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계명과 함께 (교리와 성약 84 : 75-76)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권능이 있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초기에 주와함께 여행했을 때와 같은 "친구"가 되라고 훈계하셨다.(77절) 옛날에는 일꾼이 저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함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전대나 주머니 없이 여행했었다. 만약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데 충실하다면 이 위탁을 받을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나 몸에 근심이 없을 것이며 배 굶으거나 마실 물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생활의 물질적인 면에 관심해서는 아니되었다.

또 들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세상 열국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허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82-84절)

예수가 살아서 전도하실 때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훈계를 주고 있다. (마태 6 : 25-34) 어떤 작가들은 이 설교를 비평하여 말하기를 만약 이 충고를 세상이 받아들였다면 모든 진취의 기상과 진보는 중지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산상 수훈이 미 대륙에서 주어졌을 때 이 점을 명백히 한 말이 물론경에 쓰여있다. 부활하신 주가 십이사도에게 향하여 이 훈계를 주셨다. 그것은 세상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다시 이 신권시대에도 그 교훈은 세상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선교 사업에 부름을 받은 자를 위한 것이며 만약 그 말에 충실하다면 언약들은 이루어질 것이다. 존 테일러 대관장의 아래의 간증은 충실한 자에게 준 이 언약의 완성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다.

...나는 지상의 여러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갑이나 주머니를 가지지 않고 수천 수만 마일을 여행한 각처에서 온 사람들을 주위에서 본다. 그들은 들, 산, 사막, 바다, 대양 그리고 강을 여행했으며 영생의 귀한 씨를 가지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전진한 것이다. 그들이 여러 국민들에 의하여 이해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사실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약한 마음으로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전달했던 영생의 원리의 승리의 상태로서의 노고의 열매를 가지고 기쁘게 돌아왔다. 나는 이전에 이 교회의 장로들이 가정의 복지에 관하여 나타낸거와 같은 순결하고 애정깊고 사심이 없는 그러한 예는 그외 다른곳에 없다고 말하고 싶다. 라고 수만 마일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여행했다. 또 내 주위의 형제들도 같은 일을 했다. 그럴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데 필요한 것이 부족한 일이 있었던가? 나는 결코 그런일이 없었다. 하나님이 장로들과 함께 가셨고 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여기 이렇게 모인것처럼 함께 모았다.

그들은 인간의 가족에 대한 예수의 소원과 전능자의 희망을 완수하려고 모색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라는 말을 들어왔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더욱이 예수의 영이 그들과 함께 가시고 그의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설교집 14 : 189)

그러나 현재는 어떠한가? 오래 동안 말일성도 선교사들은 전대와 주머니를 휴대하고 있다. 이 행위를 반대하는 법이 실재하며 또한 선교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님은 신권시대의 그 절정때에 하신것처럼 다른 방식을 정하신 것이다. (누가 22 : 36) 이 변화에 관하여 찰스 더블유 펜톤즈 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확실히 내가 세상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는 문자 그대로 "전대나 주머니 없이" 여행했다. 이제 나는 이것이 현재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환경이 바뀔에 따라 그것에 맞추기 위하여 주는 그 계명을 변경시키신다고 나는 믿는다. 예수께서 세상에 나간 여러분께 가르치신 것과 같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을 가지지 않았으니 "일꾼이 제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러나 뒤에 예수는 말하셨고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그러나 예수는 말씀하시되 "전대 없는자는 가지게 하고 칼이 없는 자는 사게하라" 환경은 바뀌었다. 예수는 바뀌지 않았으나 변하고 있는 환경이 주의 현대의 상태는 옛날과는 현저히 변화했다. (대회보고 1921년 10월 17페이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또한 적절할 때가 왔을 때 생명의 말씀을 불러

이르킬 수 있도록 마음에 그 말씀을 간직하라고 현대의 신권시대의 선교사들에게 권고하셨다. 무엇을 말할가 미리 염려말라고 가르침을 받아왔으나 그들은 복음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계시를 부지런히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교리와 성약 84 : 85) 선교사들은 "세상의 의롭지 못한 행위를 타일르고 앞으로 있을 심판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87절) 보상과 벌

하나님의 종을 도와주는 사람은 결코 그들의 상을 잃지 않는다. 한편 주님의 선교사를 거절하거나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정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교리와 성약 84 : 88-91)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여러 고장들은 정죄받으리라고 선언되어 있으나 그 몇세기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위해 도시나 마을을 부지런히 찾아다녀야 한다. (92-95절)

주님의 심판의 날에 세상이 주님의 종을 통해 주님을 받아 드리는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예고된 바와같이 백성들에게 벌로서 역병이 나리게 될 것이다. (교리와 성약 84 : 96-97, 63 : 32-37, 45 : 26-44) 지구는 악에서 깨끗하여지고 그렇게 된 날에는 만인이 주님을 왕중왕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 때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주님은 그들의 율법자이심을 알고서 84장 99절에서 102절에 있는 새로운 노래들을 소리높이 부르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복천년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 주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로서 시온이 지금 지상에 건설되고 있다. 조만간에 시온시(신 예루살렘)는 하나님의 영광에 까지 올려질 것이다. 구세주가 지상에 그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실 때 태초부터 그 영광의 날은 기다리는 구속자들의 기쁨은 크리라 인간의 적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결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약속하신 만유(萬有) 회복은(사행 3 : 19-21) 인간을 위해서 계획된 모든 언약과 활동들이 하나가 되므로써 완성될 것이다. 예녹의 시온과 말일의 시온이 기쁘게 서로 만날 것이다.(모세 7 : 62-64) 그날에 주님은 그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속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때 구속주는 백성들의 찬송의 노래를 지고한 본에게 보낼 것이다.

결 론

84장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선교사의 가족들을 보살피는 것과 또한 당시 소신권 소유자들은 복음의 전파를 위한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되풀이 명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103-108절)

각자 자기의 맡은바 일을 다하고 누구든지 남에게 구세주의 필요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충고가 주어졌다. (109-110절) 이 신권에 관한 계시에는 교회조직의 생명체인 신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교회와 죽은 종교의 형태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관촬함이 파땡하다. 84장은 교회감독이 할 미국의 몇몇 대도시에 대한 경고의 뎃세이지에 대한 계명으로 끝난다. 어느 때인가 악의 잔이 가득찰 때 주님의 능력이 명시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려 오실 것이다. (111-120절)

토론을 위한 질문

1.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의 생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2. 토론: 이적은 참 교회의 특색이다.
3. 이적(예를들면 병 고침)이 참 교회 이외에서도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참 교회의 회원과 비회원은 어느 것이 참 교회인가를 시험하는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4. "일꾼이 제 삯을 받아 마땅하니라"는 말은 무슨뜻일까?
5. 구원받은자들이 노래하는 노래속에서 찾을 수 있는 복천년의 상태를 될 수 있는대로 많이 들어보라.

방문교사 멧세이지

교리완성약에 의거하여 실천하는 진리

크리스틴 로빈슨 저
최 장 순 역

멧세이지 62 -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진리를 모두 빛
이니라" (교리완성약 84 : 45)

1965년 3월 첫모임을 위하여

목 적 : 진리의 본질을 설명하고 진리를 끊임없이 찾는 것
이 중요함을 보여 주는 것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추구대상중 가장 큰 것
은 진리 탐구에 있었다. 진리는, 철학자들에게는 목적이
되며 시인들에게는 주요한 자극제가 되며, 과학자들에게는
갈구하는 대상이 되며, 우리 모든 인간들의 종교적인 열망
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 세상과 그안에 있는 모든 것은
진리의 바탕^{것들의}위에서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생물체와, ^{것들의}발전과 진보의 변함없는 기초가 된다.

교리와 성약 84장에서 의인용구에서 강조한바와 같이
구세주께서는 빛과 진리를 회복하시려고 외 땅에 오셨다.
그는 복음을 정하셔서 우리의 이 세상 생활의 진로위에 빛
을 던져주셨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고 더욱 풍성하
게 되는 것이다. 구세주의 생활은 빛과 진리의 권좌이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
음 8 : 12)고 하였다.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은 해를 거듭해서 되풀
이 되어 왔으나 우리는 현대 계시에서 "진리는 사물이 현
재 있는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그대로, 미래에 있을 그대
로의 지식이다."라는 답을 받았다. (교리와 성약 93 : 24)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있다.

"말해 보아라 무엇이 진리냐 못보배 보다 더 귀
한것, 교만한 군왕의 값진 면류관을 무용하게 여
겨 버릴 때 이 진리 더욱 더 귀하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회 찬송가15장)

우리 생애에서 가장 힘써 구해야 할 것은 진리를 구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다. 회복된 복음의 기본 원리는 인간
은 지식을 얻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혜
와 지식은 진리에서 나오며 진리는 진보를 초래한다. 그
것은 행복의 근원이며,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성장하고 발
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진리를 구하는 이에게 고무적인 한가지 사실은 진리는
우리의 주위에 늘 있으며 진실로 이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
게 주어지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러해 전 심한 폭풍으로 한 화물선이 그 갈 길을 잃고
말았다. 배는 많이 파손되어 손을 뻗칠 수가 없을 때
바다의 조수는 이배를 어느 알지 못하는 만으로 이끌어다
놓았다. 그 배에는 신선한 음료수는 떨어졌으며 선원들은
갈증으로 고통을 받았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배가
뜨고 있는 물은 짠 바닷물이라는 것을 알고 감히 먹을려
하지도 않았다. 드디어 절망상태에 빠진 그들중 어느 한
사람이 그의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켈스로 물을
들어 올려 그 물을 맛보았다. 놀라웁게도 그 물은 신선
하고 시원하며 생명을 주는 물이었다. 실제로 그 배는 어
느 큰 강의 입구에 떠밀려 와 있었으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물은 말할 수 없이 신선한 것이었다. 선원들은 아주
쉽게 그들이 갈구 했던 새 생명과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윌리엄 조오지: "자제" 71 페이지)

진리도 이 생명수처럼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갈증으로 고통받던 선원들 처럼 현명했다면 우리는 능히 그 진리에 도달하여 우리 생의 일부분으로 만들 것이다.

구세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 : 32)고 하셨다. 진리를 알므로써 우리는 자유롭게 되며 죄에 억매이지 않고 유혹과 공포에서 해방되며 영광스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의 재능과 잠재력을 완전히 다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죠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너희가 진리를 배우고 진리의 빛 가운데서 걸어간다면 너희는 인간적인 의식적인 과오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즉 너희는 모든 의혹과 잘못에서 초연하게 될 것이다" (복음교리 10 페이지)

진리가 가져다 주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그 진리를 적용하여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리차드 엘 에반스 장로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는 식물을 갖고만 있는거와 같이 아무런 미덕이 될 수 없다. 인간이 진리를 이용하고 현명하게 활용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인간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의 자녀인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야 한다.

- - - - -

(27페이지에서의 계속)

으르지도 말며 오직 온 힘을 다하여 일함은 나의 뜻이니라 (교리와성약 75:3) 오늘날 우리의 예언자이신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말하기를 "일은 행복을 가져오나 그 행복을 창조한 자에게 갑절의 행복을 안겨 준다"고 말했다.

봉사의 모임

행복한 생활

제 6 과: 행복은 일에 오는 것.

목적: 일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함

원니 후 레드 씨. 자딘 저
황 근 옥 역

1965년 3월 둘째 모임

노력 — 그것은 얼마나 안정되고 확고한 말인가?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어떤사람에게는 치료로서 어떤사람에게는 헌신인 것이다. 어떤사람은 자부심으로써 또 다른 사람에게는 고역이 되는 일이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 그것은 생활(생계)의 수단인 것이다.

한 여대생은 고학을 하고 있었는데 언제든지 자기에게 문제가 닥쳐올 때는 마루를 댑는데 더 한층 열중하는 것인데 식구들은 이것을 알게되면 그 학생으로 하여금 방치해 두는것이 그 학생에게 하나의 치료가 되는 것이다.

이부 큐리부인은 라디오 동위원소에 대한 847회의 실험에 실패한 후 그 남편에게 "만일 이 실험이 백년이 걸린다면 유감스러운 일이겠지 단 내가 살아 있는한 이 실험을 위한 노력을 중지하지 않겠어요"라고 말했다. 그녀의 노력은 헌신의 모범이다.

훌륭한 스위스의 이민으로 이미 70대도 반이나 지난 할머니가 가족을 위하여 잘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 일을 칭찬하자 "무얼그러십니까? 이것은 나의 일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여자에게 있어 일이란 자랑인 것이다.

어떤 어린이에게 일하는데 대한 생각을 묻자 "내가 해야 할 일이면 어느 것이나 해야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노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어린이에 있어서는 일이란 고역으로 생각된 것이다.

일이란 기쁨이어야 하며 즐거운 노동이어야 한다. 그것은 일의 완성과 실천과 성공을 이룩한다는 의식을 동반해야 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오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결과로 왕성한 식욕을 가져다 주며 밤에 깊은 잠과 휴식에 완전한 기쁨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전도서에 "일할 때가 있고 놀 때가 있다.(전도서 3:1-8 참조) 라는 말이 있다. 일의 적당한 순서(즉 일과 휴식의 적당한 순서)에 따라서 각각 행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에 훌륭히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후머씨는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이 나라 안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두가지(일과 휴식)를 혼동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젊은이들은 지금은 놀기를 원하고 만일에 시간이 있으면 일할려고 한다. 부모들은 지금 사고 후에 일하여 지낼하려고 한다. 이것은 양쪽이 모두 불행으로 이끌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간에 일을 계속 배워야 하며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참고 배워야 하는 것이다. 스케줄, 가족회의, 연중표, 하루의 계획 할당등은 완성이기 위하여 자주 응용되는 모든 방법들이다. 어떤 여자는 아침 일찌기 아침에 해야할 일을 다 할 때 그날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내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 연후에 어느 일이든지 남는것은 힘들이지 않고 진행하거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진행되는 것이다. 가장 큰 행복을 위하여는 일이 첫째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 즐거움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적당한 도구를 사용해서 적당한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이며 가장 알맞는 시간에 일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더욱 필요한 것이다. 모든 주부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의

독특한 방법으로써 일을 해 왔으며 그것이 경험의 토대가 되어 왔다. 또한 그들은 새로운 지름길 즉 장려해야 할 방법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좀더 향상 발전 되려면 더욱 노력하고 발전 과정에 대한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행복이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써 일할 줄 아는 가정에 있는 것이다. 만일 부모들이 그 의식구들에게 일함으로써 행복을 얻는 본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의 자녀들은 허송세월을 하게 될 것이다. 만일 부모들이 그 의 자녀들의 나이가 아직 어렸을 때에 자기의 할일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는다면 장차 아무데도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게 될 것이며 모든 일에 우습꺼리가 될 것이다. 어린이들의 연령에 구애하지 말고 노력하도록 하면 성공하게 될 것이다. 어린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자 어떻게 노는 것인가를 알게 되나 일을 가르치는 과정은 공식적인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견실하게 끈기있게 확고하게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게 해야 한다. 여기에 따르는 네가지 단계가 있다.

1. 일을 정리하고 예상되어지는 것을 정확히 한다.
2. 어린이가 그일의 과정을 잘 알때까지 함께 일을 하라.
3. 끝낸 일이 확실히 표준에 적합한 것인가 검토할 것.
4. 이를 확인한 후에 어린 아이들이 한일에 손을 대지 말 것, 어른이나 어린이의 대다수가 불행하거나 일에 대한 욕구불만은 이 네단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엣세동안에 힘써 일하라는 10계명을 준 당시 부터 주님은 세상사람들에게 일하라고 하셨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셨다. (데살로니가전 4:11) 물론경에 니파이는 그의 백성에게 부지런하라 그리고 자기손으로 일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니파이 2서 5:17) 교회의 초창기에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체하지 말고 계

(24 페이지 계속)

문 학

제 6 과: 성서에 나타난 시
책 순 혁 역

목 적: 성서에 나타난 시의 문학으로서의 우수
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몇가지 시형을
고려할 것.

1965년 3월 셋째모임

"그렇게 적은 장소에 그와같이 훌륭한 시정을 내포하고 있는 문학은 성서이외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서에 있어서 시적인 문학상의 가치를 완전히 감상하기 위해서 옹기,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야만 합니다. 이 짧은 고찰에 있어서는 성서의 시로서의 문학상의 가치를 주게되는 몇개의 특성을 나타내며 또한 성서파 시적 표현의 보고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치기로 합니다. 성서의 시는 깊은 동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서의 시는 동서고금 누구에게나 참된 경험과 감정을 취급하며 많은 곳에서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있습니다.

성서중의 시의 대부분, 특히 시편은 자연에 의해서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서의 시인은 생생하게 솔직한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시인은 모든 언덕을 인간에게 보여주고 또한 "바람 날개에 타시는" 전능하신 여호와가 소리를 내어 "땅을 떨리게 하며" 손으로 만져 "산에서 연기를 내게 하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번 고치는 일 없이 가장 심오한 진리와 가장 깊은 감정을 간결하게 힘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서의 시편은 어떠한 능력있는자도 적합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고 쉽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나 항상 솟아나는 샘과같이 아무리 퍼낸다 해도 다함이 없는 깊은 곳이 있습니다. 성서 가운데의 시의 아름다움

은 우리들 주위에 있는 세계를 묘사한 데에 있습니다. 성서의 시 가운데 "온천하는 산자의 거대한 합창이 되며... 모든 시냇물 소리, 귀를 즐겁게 하는 바람소리 모든 맑은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의 시의 현저한 특성은 그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서정시에서 위대한 영웅의 행동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업적을 괴상하게 생각하고 그 진의를 풀고자 고민하고 있는 근심하는 영웅을 나타낸" 위대한 서사시인 읊기에 이르기까지 온갖 시의 형식에 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시인에게 있어 여호와와는 만물의 창조주이며 만물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여호와와는 창공에 번쩍이는 우뢰를 타고 들의 백합에 옷을 입히고 새들과 사자에게 양식을 주며 비를 오게하며 풍성히 결실하는 계절을 주는 여호와와는 이스라엘에 있어 영원한 방패이며 위안과 즐거움인 것입니다. 어느 필자는 성서의 시를 다른 시와 구별하는 세개의 크나큰 성질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1. 자연에 대한 순수한 사랑
2. 성스런 미에 대한 열정적인 감각
3.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깊이 느끼는 즐거움

시 편

옛날 시편의 저자는 그의 손에 거문고를 들고 하늘의 광대함, 밤의 신비, 사막의 강열한 더위, 폭풍우의 장엄한 광경을 명상하였으며 이러한 자연현상에서 만물의 창조주인 여호와의 말씀을 음미하고 있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적 상상이 이 시인의 마음속 깊이 숨어 있는 정서를 불러 이르켜 그는 시편 제 23편에 있는 거와 같은 아름다

은 표현을 묘사하게 된 것입니다. 두 세계의 시를 그 중에서 뽑아 여기에 기재하겠습니다. 독자는 시편이 얼마나 풍성한 시문학의 보고라는 것을 새삼스러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와 의 소리가 물위에 있도다. 영광과 하나님 이 보성을 발하시니 여호와와 는 많은 물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와 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와 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여호와와 의 소리가 백양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시편 29:3-5)

"여호와와 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시편 18 : 2)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 : 1)

윤리적 정서가 특히 현저한 시편 23편이나 42편과 같은 시에서 볼 수 있는 영감은 사막이 지니는 장엄과 신비에서 온 것으로 다른 문학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서정시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에 실린 많은 시는 여러 위대한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적절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에 대신하여 표현한 것으로 많은 위대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시인 것입니다.

영국의 에리자베스 여왕(일세)이 영국의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을 알았을 때 시편 118편 23절에 있는 "이는 여호와와 의 행하신 것이요"라는 성구를 인용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옥스포드대학의 표어는 시편 27편의 최초에 있는 "여호와와 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와 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성구 입니다.

예언자들의 시 — 서사시

성서 가운데는 시편의 저자이외로 보다 위대한 성서의 시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훌륭한 시인 예언자들 가운데에서도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요엘과 같은 사람들은 특히 눈에 띄이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들의 시대와 꼭 비슷한 그러한 위기에 그들의 나라가 처해 있을 때 살고 있었읍니다. 이들은 시인일 뿐만 아니라 시인 정치가이기도 했으며 침략자가 나라를 침범할라고 진군하는 모습을 예언할 수가 있었읍니다. 이들은 두려움과 경멸과 또는 비탄 가운데서 부르짖었으나 "그들의 목소리는 항상 옛날의 단순한 생활과 종교에 되돌아가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항상 그것은 새로운 향락이 사나이의 기질을 서서히 약화시켜 새로운 주의가 진가치를 잃게하면 안되기 때문에 주위 사람에게 그들의 의식을 시정하도록 부르짖는 사막의 소리였읍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일예는 오늘날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요엘 2 : 9 - 10)

예언자의 시는 한결같이 처절한 긴장하에 어느 민족의 마음가운데 깃드린 정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 민족의 변천해가는 전통에 대해서도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필연코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의 주의와 사명과 위험을 환기하는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읍니다. 이 예언자들이 말하는 산문적

인(단조한 말씨) 설교는 돌연히 그치고 서사시적인 말로 변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서사시란 극적 요소를 띤 서정시적 작품중의 특수한 형식입니다. 그것은 시와 음악의 요소를 겸비한 생생한 영적인 말로 그 좋은 예는 이사야서 마지막 26장에서 거의 완전한 의미로서의 서사시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중 몇장은 전혀 하나의 영극인 것입니다.

모세, 사무엘, 사울, 다윗등은 모두 각자의 확신한 바를 나타내는 용기있는 예언자인 시인들이었습니다. 나단과 에리야는 그 외의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는 모두 그들의 신성한 말씀을 가지고 방방곡곡을 찾아 다니며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일과였습니다.

예언자들에 의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되"라는 말씀은 왕의 거실이나 회의가 진행되는 집회소나 어디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시장이나 신전안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들려왔습니다.

성서 비평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예언서와 같이 애국적 동기, 시와 미래상이라는 강한 감정에 호소하는 심중의 자세, 위기에 처해있는 조국의 정치적 도덕적 부흥의 추진등을 겸비한 문학은 이외 다른 곳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 가운데의 시인예언자들은 과부나 아비없는 자녀들에게는 공평한 취급을 하며 가난한 사람에게는 형제애를 베풀도록 역설하는 사회 개량가들이며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있어 불충실함을 용서치 않는 성직자들이며 이교승배와 향락의 새로운 관습에 반대하며 역경에 처한 민족을 위로하는 자들입니다.

격 언

성서 비평가 중에는 격언을 시 가운데 넣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산문 가운데 넣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격언은 적어도 시적 산문이라 볼러도 좋을 것입니다. 성서 가운데 "잠언"은 인생의 관찰에 기인한 격언의 집성으로 인간성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으며 옛날 유대인도 우리들과 흡사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언 가운데의 격언은 인생을 안전하게 보내는 지표로서 그 가운데 포함된 지혜는 앞일을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느 해설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잠언 가운데에서는 오늘날의 자동차의 어디가 고장이라든지 좋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이와같은 것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교육, 가족관계, 직업, 자제, 사회생활에서의 일반적인 태도에 대해서 충고를 주고 중용의 철학을 가르치며 또한 다음 인용구에서 알 수 있는거와 같이 여러시대에 거쳐 누적된 지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6 : 6)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15 : 1)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17 : 17)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니라" (17 : 28)

또한 유우모어가 있는 격언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25 : 24)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21 : 19)

성서의 많은 곳에서 여러 종류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또한 읊기, 시편, 잠언, 아가, 애가와 같이 완전한 형태를

구비한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이
옴기 입니다. 옴기는 유대문학 가운데 가장 장대한 작품으
로 또한 세계 문학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시의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솔로몬의 아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
다. 이것은 순결과 정절에 관해서 건전한 교훈을 주는 위
대한 사랑의 노래로서 어느 비평가들에 의하면 깊은 상징
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잠언은 간결한 격언으로 유대
민족의 경험의 결정체 입니다. 그리고 성서 가운데 서사시
는 산문의 설교가운데 때때로 삽입하여 있는 시의 요소를
구비한 영국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서의 시는 영원한 아름
다운 영감입니다.

보조 교재

이 시편 가운데서 몇 개의 훌륭한 시를 선택하여 읽으시
요. 이것을 한편의 문학으로서 그 주제 문제 배경등을 말
하시요. 다음에 드는 것은 뉘어나게 아름다운 많은 시편가
운데서 선택한 것입니다. 시편 18, 15, 19, 24, 27, 30 : 1-8,
32 : 1-7, 33, 34, 37 : 1-19, 39, 40, 42, 46, 51, 62, 92, 102.

(2) 오늘날과 같은 상태에 특히 적절한 시편의 시 "잠언"
가운데서 몇 개를 암송하시요.

사회과학: 하나님의 율법과 교회행정.

교회 행정의 기능

아리엘 이스. 발리프 장로 저
최 장 손 역

제 19 과 - 교회 활동의 가치

1965년 3월 넷째모임을 위하여

목적: 교회에서의 활동은 온전한 생활에 필요불가결함을
보여 주는것.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인 조건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또한 이웃들의 상태를 개선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일 매일 그들의 생활에서 선행을 하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신다. (브리감 영의 설교집 9 : 190)

근본 철학

종교활동은 교회내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교회 활동은 인간적인 모든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꾸준히 적용시키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늘 "그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창조주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그의 생이란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봉사하는 생활이었다. 그는 늘 봉사하는 중에 자기를 도울자들을 선택하시고 그의 조직을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펴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드리도록 하셨다.

정식 조직면에서 볼 때 주님께서는 교회의 회원들에게 무제한의 기회를 마련하시고 봉사하도록 하셨다. 어떤 임무는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계획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같이 중요한 것이다.

구세주께서는 그의 활동을 교회 조직의 형식적인 구조에 국한시키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을 덜어주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그들의 신앙을 굳게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어느때 어느곳에서나 그의 헌신을 아끼시지 않으셨다. 그는 "듣는자가 되지 말며 오직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마음에 심어주는 표본이 되셨다.

복음의 정신은 사랑, 신앙, 성실로 통합된 봉사인 것이다. 교회 조직의 효과적인 기능은 참여하는 회원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믿음과 신앙을 키우는 사람은 바로 활동적인 것이다. 교회를 위한 선교사업으로 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은 주님의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완전히 바치는 데서 온다. 현재 선교사업에 임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매일매일은 일초, 일순간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향상을 위하여 스스로를 아낌없이 주며 그들의 생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데 바쳐지고 있다. 모든 회원이 선교사가 전도에 임할 때와 같은 열의를 가지고 우리들의 가르침의 모든 진리를 나타내어 복음의 원칙을 실행하도록 도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교훈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교회 봉사란 한가지 책임 이행이나 단순히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일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봉사의 바탕은 구세주께서 보이신 바 마음의 자세인 것이다. 그것을 보이는데는 여러 방법이 있으니 그들을 열거하면 (1)선을 행하려는 자발적인 욕망; (2) 보상을 생각지 않고 기쁘게 선행을 실천하는것 (3)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염려하는것과 (4)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것이다. 이런 봉사의 주요한 의도는 인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게 하는 것이다. 이 빛 가운데서 봉사는 결국 인간에게 오는 축복인 것이다.

활동과 영적인 성장

우리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역원들은 두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첫째로 사람들에게 대한 봉사와 둘째 개인적인 발전과 폭넓은 이해—이것은 언제나 책임있는 자리에서 가장 열성으로 봉사할 때 뒤따르게 마련이다. 교회에서 역원의 위치에서 봉사하도록 허락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며 개인적인 이득인 것이다. 그리하여 직책이 어떤 것이든 그 직책은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드려야 한다.

이상에서 기술한바 교회에서의 직책이란 봉사를 위한 부름이다. 종종 우리들은 사람들이 "나는 그런 임무를 다할만

큼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정중하며 겸손하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저는 기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훌륭한 태도이며 올바른 행위라 하겠다.

자신의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들을 포함한다. (1) 겸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향유하기 위하여는 겸손해야 한다. 교회에서 받는 모든 부름에서 누구든지 부름받은 일은 주님의 일이며 그는 오직 주님의 영광 화합해서 일할 때에만 자신의 소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도는 주님과 교통하는 수단이 되며 성신은 깨우침과 이해의 근원이 될 수 있다. (2) 일; 사람이 축복된 예지를 사용하여 그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루하고도 어려운 준비를 즐겁게 할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크게 성공한 어느 발명가는 그의 재질은 99퍼센트가 땀이며 1퍼센트가 영감이었다는 것은 알았다. 여기에서 지적하는 중요한 사실은 누구든지 어떤 소명에 성공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는 정력을 다하여 열심히 기쁘게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열성; 누구든지 자기의 임무에 열성적이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받은 회원자격에 열의를 지녀야 한다. 이 세찬 말일의 움직임 가운데에서 일익을 담당함은 하나의 영광이며 기쁨이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직임을 맡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특별한 의미에서, 회복된 복음의 신성한 본질을 증거하는 것이다. (4) 가치(자격); 누구든지 부름을 받기에 합당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합당한가의 여부는(자격여부) 다음의 사실들과 관련지어 자신을 살펴볼 때 측정될 것이다. (가) 교회의 중요한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는가 (나) 기도를 믿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가 (다) 십일조와 금식헌물에 있어 주님께 정직한가

(ㄹ) 순결의 법을 지키는가 (ㅁ) 하나님의 예언자를 지지하며 그리스도를 헛되이 일컫지 않는가 (ㄴ) 지혜의 말씀의 참 뜻을 알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는가 (ㄷ) 주님의 성스러운 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가 (ㅇ) 주님의 일의 성취를 위하여 자신의 헌신을 보여주는가; 이외 다른 표준들이 있겠지마는 이상에서 언급한 것들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에 합당한 사람의 요구조건에 훌륭한 예로서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실성에 대하여 간증을 가지고 합당한 권능을 가진자로 부서의 부름을 기쁘게 받으며 위에서 제시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교회에서 그에게 오는 어떠한 부름에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를 받아드림으로써 사람들은 오직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헌신적인 봉사에 대한 보상은 기쁨이며 이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에 관한 개인적인 확신을 보다 굳건히 하는중에 성신의 증거로부터 오는 것이다.

집단효과

인류의 발전과 전체적인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약 250명 가량의 역군으로 채워진 교회의 각 와드내에 있는 잠재력을 생각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것이다. 만약 와드의 개개인이 위에서 언급한 표준에 따라 완전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면 이러한 집단의 영향은 전사회의 가치관과 훌륭한 표준에 능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8과 참조)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에는 회원 각자가 이 공작의 첫부분에서 언급한 것과 동등하게, 나아가서는 그 이상의 실행이 필요한 것이다. 왕국의 건설을 물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나 인간적인 견지에서는 문제가 더욱더 커지는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의 남자와 여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생활방법은 효과적이며 생산적인 생활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며 그들의 심령을 울리는 것은 사랑과 이해인 것이다. 이러한 일에는 매일 매일의 생활에 있어서 복음의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되는 준비된 남녀들을 필요로 한다.

봉사에의 부름

주어진 일을 감당할만한 일단의 역군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 두가지 일이 성취되어야 한다. 첫째, 회원들 가운데에 교회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받아 드리는 태도를 길러줄 것이다. 교회 회원은 누구나 주저함이 없이 언제나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봉사하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주님의 일이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태도는 가정의 산물인 것이다.

둘째로 누구든지 부름을 받을 때는 합당한 권능 소유자로부터 직임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 있는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 (신앙개조 제 5 조)

지난해 우리의 공과에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봉사에 부름을 받는 방법의 중요성을 지적한 적이 있었다.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이나 혹은 총 관리위원은 증인으로 그 사람과 접견하고 지도자로 승인을 한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임명하는 조직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일일이 부름을 받은 직책에 대비하여 그를 훈련시킨다. 봉사에 부름받

는다는 것은 새로운 회원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 치료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잘 선택된 봉사의 영역에 그들을 지명함으로써 자극을 주어야 한다. 우선 처음에 조그마한 책임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신념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여 그의 영혼에 따스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는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에서 그는 개인적인 자극을 받고 자신은 그 조직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신권과 보조조직 활동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는 지도력의 책임이 신권에 있다. 모든 회원들의 지적, 영적, 세속적인 안녕을 돌보기 위하여 교회는 항상 여러 조직을 부가하여 복음 가운데서 교훈을 주며 인간의 다양한 욕구에 응하고 동시에 많은 회원에게 지도자로서의 기회를 이 부가적인, 다시말해서 보조적인 조직은 늘 신권에 따라왔던 것이다. 이 신권은 교회조직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보조조직의 일이나 활동에서 소비되는 많은 힘이 여성의 활동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오늘날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교회의 지도자는 모든 활동과 신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 수년간의 보조사업에서 얻은 뜻있는 일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을 발전시켰으며 이들은 사회의 각층 여러 활동면에서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지도자로서 발전하여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신권의 지도를 받아가며 각 연령층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공식화 시키고 있다. (이 연령별 프로그램은 불필요한 중복을 제거한다.) 그러나 각 연령층 집단에 적절히 교회의 중요한 가르침을 강조한다. 신권의 조정은 단지 신학을 배우는 것 뿐 아니라 사교상의 여러방면에 대한 종교적인

가르침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가 될지어다.

교회활동의 가치를 논할 때 우리는 "가치"라는 단어는 두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1) 개인적인 견지에서서의 가치는 이제까지 지적된 바와같이 제한이 없다. (2) 전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활동의 가치는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봉사의 중요성을 늘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을 먹이라"고 하셨으며 성경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 (교리와 성약 42 : 29, 요한복음 14 : 15, 21)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이는 오직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섬김으로써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사명의 전체적인 목적은 인간을 부활하게 하고 하나님의 최고 영광에 까지 이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가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 순간 하루 혹은 일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오직 안식일에 있는 활동을 이행함으로써 성취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욕망들을 억제하고 매일 매일의 생활과제를 종교적인 이상의 빛 가운데에서 수행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사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는 회원 각자가 자기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사람들의 마음에 의를 심어주는데 필요한 다른 것들을 바치면서 재산 헌납을 지켜 살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회에서의 활동이란 이웃을 섬기는데 그 의의가 있다.

모든 사람은 형제를 제 몸과 같이 귀히 여겨야 한다. (교리와 성약 38 : 24-25) "너희가 네 이웃을 섬기는 것은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모사이야서 2 : 7) 봉사는 사랑을 낳고 사랑은 화합함을 낳고 화합함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낳게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되라 만약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혜택을 받지 못하리라 (교리와 성약 38 : 27)

토론을 위한 문제

- 1) 어떻게 봉사는 구원에 필요 불가결한가?
- 2)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정도로 봉사 하셨나?
- 3) 교회 활동과 간증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4) 평신도(일반회원) 지도자들~~이~~가진 특히 눈에 띄는 가치는 무엇인가?
- 5) 하나님 아들과 그의 아들이 하나님은 인간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는가?

참 고

교리와 성약 38장, 42장

존 에이. 윌드소 편집 부리감 영 설교집 제 7 장

'65년 1월에 침례 받은 사람

대구지부: 김 무 현, 송 은 자, 정 영 수.

서부지부: 유 공 선, 이 부 옥, 김 소 히
권 손 분, 유 길 자, 장 숙 자,
허 희 행, 조 선 자, 홍 경 자,
이 영 자,

삼청지부: 강 춘 봉, 민 경 집.

성동지부: 조 희 숙, 강 동 근, 한 복 선,
강 영 민, 김 한 우, 김 삼 배,
고 문 준, 이 경 재, 윤 세 원.

청운지부: 김 영 근, 김 복 희, 김 문 순.

부산동구: 이 동 탁.

부산지부: 허 숙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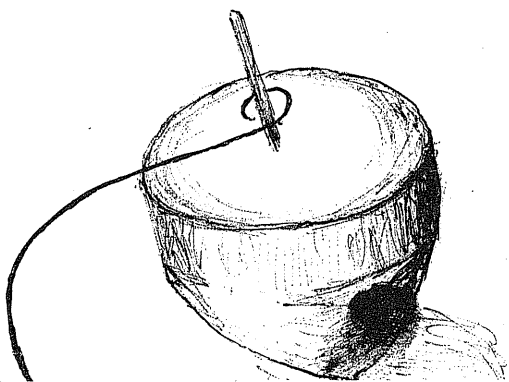
편 집 후 기

희망의 새봄을 맞이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성도의 벗"을 다시 속간하게 된것을 여러 성도들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독립하여 발행했던 상호부조회지와 합하게 된것은 미약한 힘을 합하여 보다 큰 열매를 맺게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호부조회지를 위하여 수고하셨고 또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실 자매님들께 사의를 포함합니다. 주님이 가운데 맺어져 새 가정을 이룩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있어 이달에는 이점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예언자의 말씀으로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부의 소식란을 마련하고 있지만 소식을 전해주시는 지부가 없어 실리지 못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성도들의 물심양면의 협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 식 —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教部

(住 所 錄)

宣教本部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73-3995
三清支部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5번지	72-3596
城東支部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락동 산 12의 24번지	
西部支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8의 1	73-1208
大邱中央支部	대구시 삼덕동 2가 24번지	2-6659
釜山支部	부산시 동대신동 3가 95번지	2-1371
東區支部	부산시 동구 수정동 658의 10	

성도의 벗

發行人 개 일 이 · 카
編輯人 具 重 植

發行所 서울特別市鍾路區清雲洞 7
印刷所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教本部

1965.